

한자어 접두사 ‘친(親)-’에 대한 연구

- 준접두사 설정에 대한 필요성을 중심으로 -

서미옥*

〈차례〉

1. 머리말
2.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 기준과 준접두사
3. 접두사 ‘친(親)-’에 대한 새로운 분석
4. 맺음말

【국문초록】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자어 접두사에 대한 연구를 보면 주로 한자어 접두사의 인정 여부와 한자어 접두사의 판별 기준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개별 접두사에 대한 검토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물론 접두사의 판별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 한자어 접두사에 대한 목록 역시 달라지지만 선행 연구를 검토해보면 동일한 한자어 접두사라도 그것의 다의의미를 모두 다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의미만 내세워 분류한 것이 적지 않았다. 사전마다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다르게 기술하지만 접두사를 판별할 때에는 하나의 사전보다는 여러 개의 사전을 종합하여 분석하여 의미에 대한 목록을 낸 후 그 의미 중 어떤 것이 관형사 혹은 부사로 쓰이는지, 어떤 의미가 어근으로 쓰이는지, 어떤 의미가 접두사로 쓰이는지를 세밀히 검토해보아야 한다. 본고는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여 한자어 접두사 ‘친(親)-’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친’이 모두 다섯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 중 ‘친부모’, ‘친할머니’는 거의 모든 논문에서 접두사로 보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예를 하나의 의미로 합하여 볼 것인지 아니면 나누어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고, ‘친정부’와 ‘친필’을 한자어 접두사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관점이 있었으며, ‘친환경’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한자어 접두사로 보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분석해보기 위해서 먼저 기존 논의에서 제시한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 기준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네 가지 기준 ‘비자립성, 수식 범위의 제한성, 의미의 유연성 상실, 고유어와의 결합 가능성’으로 한자어 접두사를 설정하고, 그 중 고유어·외래어와의 결합이 가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고유어 체계에 녹아들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준접두사의 지위를 부여하여 앞으로 접두사로 전환될 가능성을 지켜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친(親)-’을 분석해보았는데 ‘친족계열’의 ‘친’과 ‘부계 혈족 관계’의 ‘친’에 대해서는 모두 접두사로 보되 의미에서의 차이를 인정하여 두 가지 의미로 세분화하였고 ‘무엇을 옹호하고 지지하다’의 ‘친’에 대해서는 접두사로, ‘무엇에 해를 끼치지 않다’의 ‘친’에 대해서는 준접두사로 처리하고 ‘몸소’의 의미를 가진 ‘친’에 대해서는 그 쓰임이 접두사보다는 어근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주제어: 한자어, 접두사, 비자립성, 수식 범위의 제한성, 의미의 유연성 상실, 고유어와의 결합 가능성, 준접두사, ‘친(親)-’.

1. 머리말

이 연구는 지금까지 논의된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 기준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접두사의 설정 기준을 수정하고 동시에 한자어 준접두사 설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설정된 기준에 따라 한자어 접두사와 준접두사의 목록을 도출하고, 그중에서 한자어 ‘친(親)-’의 접두사적인 쓰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자어 접두사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은데 설정 기준이나 접두사 목록에서 일치를 보이지 않는다. 한자어 접두사¹⁾에 관한 주요 논점은 한자어

1) 본고에서의 ‘한자어’는 하나의 형태소로서의 한자도 포함한 것으로 한자 단어와 한자 형태소를 포괄한 것을 말한다. 노명희(2005)에서도 ‘한자어’의 용어를 단어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는데 그것은 ‘한자어’가 국어어휘의 한 구성 성분이라는 의미를 잘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안소진(2004)에서도 ‘고유어 접두사’와 대

접두사의 존재를 인정 여부, 한자어 접두사와 고유어 접두사의 구분,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 기준 등으로 한자어 접두사의 인정 여부부터 설정 기준에까지 논의가 끊임없었다. 이는 한자어가 가지는 한문의 특성을 한국어 체계에서 동시에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초래되는 문제로 한자어 접두사에 대한 인정 여부나 판별 기준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자어 접두사의 판별 기준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한자어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한자어를 고유어와 동등하게 다룰 것인지 아니면 한자어만을 위한 별도의 체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접두사를 다룰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한자어도 한국어 어휘라는 인식하에 한자어를 별도의 체계에서 다루지 않고 고유어와 함께 다룰 것이며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 기준을 세울 때 고유어 접두사의 설정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자어 준접두사’라는 범주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도출되었다. 한자어 준접두사는 한자어 접두사보다 한문의 특징을 더 강하게 나타내어 아직 고유어와 결합하지 못하는 접두사로 ‘친(親)’의 다의의미 중 하나가 이에 해당함을 보이 고자 한다.

2.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 기준과 준접두사

한자어 접두사에 대한 설정 기준은 학자들마다 다르며 그 논의에 따른 한자어 접두사의 목록 또한 다르다. 몇몇 기존연구들을 보면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 기준에 여러 개의 항목을 두고 그 항목에서 몇 가지 이상을 충족시키면 접두사로 본다고 하였는데 이는 접두사에 대한 판별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 기준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접두사의 설정 기준을 제시하며

칭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였다. 본고에서도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한자어’가 가지는 한문 특징과 한국어에 융합된 특징을 모두 고려하여 한자 형태소와 한자 단어를 다 ‘한자어’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자 형태소도 ‘한자어’로 보아야만 한자어 접두사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그 기준에 따라 목록을 세워보고자 한다. 성환갑(1972)에서는 접두사의 설정 기준으로 ‘단음절성, 의미의 유연성 상실, 생산성’을 제시하였고, 이광호(1994)에서는 ‘비자립성, 의미의 변화성, 생산성, 단음절성, 후속어기의 자립성, 의미의 첨가성’을 설정 기준으로 들었다. 그리고 노명희(1998)에서는 한자어 접두사와 관형사, 어근과의 구별을 제시하였는데 그 기준으로는 ‘분리불가능성, 수식범위 한정, 의미의 유연성, 어기의 범주변화, 고유어와의 결합가능성’이었고, 김창섭(1999)에서도 관형사와 비관형사의 구분, 접두사와 어근의 구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 기준들로는 ‘수식범위 한정, 고유어와의 결합가능성’이다. 김인균(2002)에서는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 기준으로 ‘단음절성, 2음절 이상의 자립적인 어기를 앞에서 수식하는 비자립적 형태, 고유어·외래에도 붙는 높은 생산성, 의미와 기능의 독립성’을 제시하였으며 안소진(2004)에서는 ‘수식 범위, 고유어와의 결합가능성, 의미 유연성’을 설정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비교적 최근 연구인 방향옥(2011)에서는 ‘단음절성, 의존성, 생산성, 어기의 범주 변화, 고유어 및 외래어와의 결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한자어 접두사의 기준들을 보면 ‘단음절성’, ‘비자립성’, ‘의미의 유연성 상실’, ‘생산성’, ‘고유어와의 결합가능성’이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성이 존재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특성으로만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자어 접두사를 고유어 접두사와 동일한 체계에서 논의하는 입장을 주장하면서 한자어 접두사와 관형사, 접두사와 어근과의 구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비자립성’, ‘수식범위의 제한성’, ‘의미의 유연성 상실’, ‘고유어와의 결합가능성’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 번째 기준인 ‘비자립성’은 접두사가 어기 없이 홀로 사용되지 못하기에 문장에서 단독으로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이는 접두사와 관형사, 접두사와 어근 혹은 단어와의 구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한자어는 하나의 단어가 어근으로도 사용되고 접사로도 사용되는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왕’은 ‘왕자’로 사용될 때에는 ‘자’가 없이도 문장에서 홀로 사용되지만 ‘왕거미’와 같이 ‘큰 종류’의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어기가 없이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못한다. 따라서 ‘왕거미’의 ‘왕’과 같이 비자립

적인 쓰임을 보이는 한자어에 대해서만 접두사로 본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인 ‘수식범위의 제한성’은 접두사가 수식해주는 범위가 단어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접두사와 관형사, 접두사와 부사의 구별을 용이하게 해준다. 한자어 ‘명(名)’과 ‘친(親)’의 수식범위에 대해 비교해보자.

(1) a: ‘명(名)’-명배우, 명 드라마 배우

b: ‘친(親)’-친정부, 친일 정부

(1a)의 ‘명(名)’은 ‘명배우’에서는 접두사적인 쓰임을 보이지만 ‘명 드라마 배우’에서는 ‘드라마’를 수식하기보다는 ‘드라마 배우’를 수식해주는 것으로 단어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친(親)’은 ‘친정부’에서는 ‘정부를 지지하는’ 의미로 쓰이고 ‘친일 정부’에서는 ‘일본을 지지하는 정부’라는 의미로 ‘친’의 수식 범위가 단어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 따라서 ‘명’은 한자어 어근이나 관형사로 보고 ‘친’은 한자어 접두사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은 접사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한자어, 고유어를 떠나 접두사의 기본적인 설정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은 ‘의미의 유연성’인데 여기에는 ‘의미의 첨가성’이 포함되어 있다. 한 형태소가 접두사이냐 어근이냐를 판단할 때 3음절 단어보다 2음절 단어에서 판단하기가 더 어려운데 이때 의미의 유연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판단이 용이해진다.

(2) a. ‘왕자병’-‘왕개미’

b. ‘친소’-‘친부’

a는 둘 다 3음절 단어인데 ‘왕자병’은 ‘왕자-병’으로, ‘왕개미’는 ‘왕-개미’로 IC분석을 하기 때문에 ‘왕’이 어근으로 사용되었는지 접두사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b는 IC분석이 둘 다 ‘친-소’와 ‘친-부’인데 여기서 의미의 유연성을 이용하면 ‘친소’의 ‘친’은 ‘친하다’의 어근으로 쓰인 것이고 ‘친부’에서의 ‘친’은 ‘부계 혈족 관계인’의 의미로 쓰

인 것으로 접두사이다. 접두사는 보통 자립적인 어기들과 결합하지만 때로는 비자립적인 어기들과 결합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친’과 결합하는 ‘소’나 ‘부’는 한국어에서 자립적으로 쓰이는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같은 부류에 속하지만 의미의 유연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친소’의 ‘친’은 한자의 의미와 같은 쓰임으로 사용되었지만 ‘친부’의 ‘친’은 의미의 유연성을 상당히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의 한자가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어느 것을 기본 뜻으로 설정하고 의미의 유연성을 판단하여야 하는가이다. 이 논문에서도 기존의 논문에서 주로 기준으로 세운 한자의 ‘훈(訓)’을 기본 뜻으로 판단할 것인데 그것은 한자 ‘훈’의 의미가 ‘빈도성이 가장 높은 의미’²⁾보다는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두사로 사용될 때의 의미가 한자 ‘훈’의 의미와 다르면 접두사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한자어 ‘아(亞)’는 훈의 의미가 ‘다음가는 버금가는’의 의미인데 ‘아토양’의 ‘아’는 훈의 의미와 같기 때문에 이때의 ‘아’는 어근으로 보고, ‘아황산’처럼 화학 작용의 결과로 산출된 결과물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접두사로 볼 수 있다. 또한 ‘시(嫗)’와 같은 한자어는 접두사의 의미와 기본의미가 같지만 한국어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처음부터 접두사의 쓰임을 보이기 때문에 함께 포함시킨다.

네 번째 기준인 고유어·외래어와의 결합가능성은 한자어 접두사를 고유어와 같은 체계에서 논의한다는 가장 명확한 부분이기도 하며 동시에 생산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자어 접두사는 한자어 어근과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유어나 외래어와 결합하게 된다면 그 한자어는 한문의 특징이 약화되어 고유어와 같은 체계에서 접두사의 지위를 논할 수 있게 된다³⁾. 또한 한문 체계의 한자어 접두사가 고유어

2) 사전마다 기본의미에 대한 설정이 다른데 ‘훈’의 의미를 기본 뜻으로 하는 사전도 있고 ‘빈도성’을 기본 뜻으로 하는 사전도 있다. 하지만 빈도성은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비해 한자 ‘훈’의 뜻은 오랫동안 근거로 삼을 수 있어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

3) 외래어와 결합한다는 것은 그 한자어의 한문의 성격이 약화되어 고유어 체계에서 고유어와 같은 방식으로 조어를 한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외래어의 사용이 잦아지면서 그 외래어를 고유어처럼 인식하여 한자어 접두사와 결합시키는 것으

와 결합하였다는 것은 최소 두 개 이상의 파생어를 생산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는 생산성이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물론 생산성의 측정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생산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고유어와 결합 가능한 한자어들은 그만큼 파생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고유어와의 결합가능성을 필수조건으로 기준을 세운다면 한자어 접두사 중 다른 기준에는 다 부합되면서 생산성도 있는 접두사들이 어떤 범주도 획득하지 못하게 된다. 즉 관형사와도 다르고 한자어 어근과도 다르며 한자어 접두사와도 다르게 된다면 이들을 위한 명칭도 필요하게 되는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명칭을 부여해준다는 것은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이 중간 지위를 보여줄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하여 그들의 차이점이 명칭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자어들이 사용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점 한문의 특징이 약화되면서 앞으로 고유어와도 결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준접두사’⁴⁾로 보고자 한다. 즉, 좁은 의미에서 한자어 접두사를 논할 때는 고유어와의 결합가능성을 필수조건으로 기준에서 제시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고유어와 결합 가능하지 못하더라도 생산성이 있는 한자어들을 한자어 준접두사로 분류하여 한자어 접두사와 구분하며, 그것들이 앞으로 한자어 접두사로 전환될 가능

로 해석할 수도 있다. ‘초(超)’와 같은 한자어는 고유어와 결합된 예가 보이지 않지만 ‘초미니’와 같이 외래어와는 결합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유행되는 단어를 보면 ‘초이쁨’과 같이 고유어와도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사전에 등재되거나 격식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자어 접두사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고유어와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 4) ‘준접두사’에 대한 설정은 여러 논의에서 제시된 적이 있는데 김규철(1980)에서는 한자어 접두사가 핵심·비핵심부분의 기준이나 본래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하는 의미 기준으로 명쾌히 구분되지 않고 또 한자어 자체가 고유어에 동화되지 못하기에 한자어의 접두사적 성격을 가진 것을 준접두사로 처리하였다. 노명희(1998)에서는 한자어 접두사를 순수접두사와 접두사적 성격을 가진 접두사로 구분하였는데 접두사적 성격을 가진 한자어는 준접두사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고 방항옥(2011)에서도 한자어 접두사로 변화되고 있는 접두사를 준접두사로 설정하여 접두사와 구분하였는데 그 구분 기준이 어떤 특정한 기준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본고에서는 준접두사를 고유어·외래어와의 결합가능성을 기준으로 접두사와 분류하고자 설정하였다.

성을 염두에 두어 크게 한자어 접두사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⁵⁾.

그리고 본고에서 ‘단음절성’과 ‘후속 어기의 자립성’은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 기준보다는 한자어 접두사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보기로 한다. 한문 체계에서는 자립적인 1음절 한자어가 한국어에서는 비자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이긴 하지만 단음절어 중에서도 자립성을 획득한 한자어가 적지 않다. 한자어 접두사로 판별될 가능성이 많은 한자어들을 살펴보면 단음절이 대부분이지만 이런 단음절들이 접두적인 의미를 가질 때에는 모두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단음절은 한자어 접두사가 가지는 보편적인 특성이지만 비자립성은 필수적인 조건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의붓⁶⁾’과 같은 한자어는 2음절어이고 친족계열의 한자어 접두사 ‘친(親)-’, ‘외(外)-’, ‘시(嫗)-’, ‘양(洋)-’은 ‘친부(親父)’, ‘외가(外家)’, ‘시모(嫗母)’, ‘양식(洋食)’의 ‘식’, ‘부’, ‘모’, ‘가’와 같이 자립적인 쓰임을 거의 보이지 못하는 형태소들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기준들은 설정 기준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접두사의 정의와 한자어 접두사의 특성

접두사: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로, 어근이나 단어의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

(인터넷판 『표준국어대사전』)

5) 준접두사가 접두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고유어와 결합하여야만 그 생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하나의 고유어와만 결합한 것은 이미 더 이상 고유어와 결합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고유어와 결합가능성을 보이는 발전단계인데 전자의 경우는 생산성을 잃었기에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그 가능성을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에 선불리 판단해서도 안되므로 본고에서는 준접두사가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고유어와 결합하였고 앞으로도 생산성이 보인다고 할 때 접두사로 인정하고자 한다.

6) ‘의붓-’은 ‘의부(義父)-’로 ‘어머니가 재혼하여 생긴 아버지, 의로 맺어진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지만 ‘의붓형제’, ‘의붓국민’과 같은 단어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본 뜻과 벗어났고 고유어와도 결합되며 비자립성, 수식범위의 제한성 등 기준에 다 부합된다. 다만 표기에 ‘ㅅ’가 첨가된 것으로 형태가 다르지만 뜻은 같으므로 한자어 접두사로 보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한자어 접두사의 보편적인 특성: 단음절이며, 자립적인 쓰임을 보이는
어기들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표1: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 기준(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 기준 (넓은 의미)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 기준(좁은 의미) 비자립성, 수식범위의 제한성, 의미의 유연성 상실, 고유어·외래어와 결합가능성
	한자어 준접두사의 설정 기준: 비자립성, 수식 범위의 제한성, 의미의 유연성 상실, 고유어·외래어 와 결합 불가능(생산성은 있음).

이 설정 기준에 따라 인터넷판 『표준국어대사전』의 한자어 접두사 96
개⁷⁾,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의 한자어 접두사 95개⁸⁾, 『연세한국어사전』의
한자어 접두사 101개⁹⁾, 그 외 성환갑(1972), 노명희(1998) 안소진(2004)¹⁰⁾

7) 가(假)-, 간(乾)-, 갈(褐)-, 강(强)-, 건(乾)-, 경(輕)-, 고(古)-, 고(高)-, 공(空)-,
과(過)-, 구(舊)-, 귀(貴)-, 극(極)-, 급(急)-, 난(難)-, 남(男)-, 내(內)-, 냉(冷)-,
노(老)-, 농(濃)-, 다(多)-, 단(單)-, 담(淡)-, 당(堂)-, 대(大)-, 대(對)-, 도(都)-,
독(獨)-, 등(等)-, 맹(猛)-, 명(名)-, 몰(沒)-, 무(無)-, 미(未)-, 반(半)-, 반(反)-,
백(白)-, 범(汎)-, 복(複)-, 본(本)-, 부(不)-, 부(副)-, 불(不)-, 비(非)-, 생(生)-,
서(庶)-, 선(先)-, 성(聖)-, 소(小)-, 속(續)-, 수(數)-, 시(嫗)-, 신(新)-, 실(實)-,
양(洋)-, 양(養)-, 여(女)-, 역(逆)-, 연(延)-, 연(軟)-, 연(連)-, 왕²(王)-, 왕²
(王)-, 외(外)-, 요(要)-, 원(元/原)-, 유(有)-, 잡(雜)-, 장(長)-, 재(再)-, 재
(在)-, 저(低)-, 정¹(正)-, 제(第)-, 조(助)-, 중¹(從)-, 중²(從)-, 주(駐)-, 준(準)-,
중¹(重)-, 중²(重)-, 진(津)-, 진(眞)-, 초(初)-, 초(超)-, 총(總)-, 최(最)-, 친
(親)-, 탈(脫)-, 토(土)-, 폐(廢)-, 피(被)-, 함(含)-, 항(抗)-, 호(好)-, 호(胡)-.

8) 『표준』과 비교하여 『고려』에서 추가된 한자어 접두사는 17개이고 배제된 한자어
접두사도 17개인데 추가된 접두사로는 ‘객(客)-, 경(硬)-, 기(幾)-, 단(短)-, 동
(同)-, 목(木)-, 선(鮮)-, 아(亞)-, 악(惡)-, 윤(閏)-, 장(丈)-, 전(全)-, 정²(正)-,
중(中)-, 증(曾)-, 평(平)-, 희(稀)-’이다. ‘중(重)-’은 『표준』처럼 두 개로 분류하
지 않았다.

9) 『연세』에서 위의 두 사전보다 더 제시된 한자어 접두사는 ‘격(隔)-, 금(今)-, 내
(來)-, 농(農)-, 당(唐)-, 매(每)-, 목¹(木)-, 미(美)-, 민(民)-, 별(別)-, 산(山)-,
순(純)-, 암(暗)-, 양(兩)-, 어(御)-, 예삿(例事)-, 왜(倭)-, 의(依)-, 익(翌)-, 전
(前)-, 주(主)-, 직(直)-, 촌(村)-, 타(他)-, 폐(弊)-, 후(後)-’이다.

10) 성환갑(1972)에서는 ‘당(當)-, 복(伏)-, 실(失)-, 열(孽)-, 영(令)-, 위(僞)-, 의
(義)-, 존(尊)-, 해(該)-’를 제시하였고 안소진(2004)에서는 ‘의붓(義父)-, 청
(靑)-’도 한자어 접두사로 보았다.

등 논문에서 제시한 한자어 접두사도 함께 검토하여 총 150개를 대상으로 한국어에서의 한자어 접두사와 한자어 준접두사의 목록을 제시하여 보았는데 다음과 같다.

<표2 한자어 접두사와 준접두사의 목록>

한자어 접두사 목록	가(假)-, 객(客)-, 건(乾)-, 공(空)-, 과(過)-, 당(唐)-, 대(對)-, 도(都)-, 반(半)-, 생(生)-, 시(媿)-, 실(實)-, 아(亞)-, 양(洋)-, 양(養)-, 연(軟)-, 왕 ¹ (王)-, 외(外)-, 의붓(義父)-, 잡(雜)-, 친 ¹ (親)-, 호(胡)-. (총 22개)
한자어 준접두사 목록 ¹¹⁾	경(硬)-, 경(輕)-, 급(急)-, 농(濃)-, 당(堂)-, 맹(猛)-, 목 ² (木)- ¹²⁾ 몰(沒)-, 부(副)-, 성(聖)-, 연(延)-, 영(令)-, 왕 ² (王) ¹³⁾ -, 장(長)- ¹⁴⁾ 정 ² (正)-, 조(助)-, 종 ¹ (從)- ¹⁵⁾ , 준(準)-, 중(重) ¹⁻¹⁶⁾ , 중(重) ² -, 초(超)-, 친 ² (親)-, 평(平)-, 피(被)-. (총24개)

어떤 접두사는 여러 개의 의미로 파생어를 만들 수 있는데 사전이나 기존 논문에서 그 의미에 대한 분류방식은 같지 않았다. 예를 들면 정²(正)-은 접두사로 본 논의도 있고 보지 않은 논의도 있는데 접두사로 본 논의에서는 그 의미를 다섯 개 내지 일곱 개로 다양하게 분류하였고 ‘생(生)-’도 접두사로 쓰이는 의미를 일곱 개에서 열 개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나의 한자어 접두사에 대해서도 접두사로 인정할 것인가부터 몇 개의 의미만 접두의미로 볼 것인가까지 다양한 관점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한 접두사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또한 신조어에 의해서 새로운 파생양상을 보이는 의미도 적극적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11) ‘정¹(正)-’, ‘종²(從)-’은 품계에 관한 것인데 준접두사의 기준에는 부합되나 현대 국어에서는 거의 생산성이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12) ‘목²(木)-’은 ‘재료가 나무인’의 뜻으로 쓰이는 접두사이고 ‘목²(木)-’은 ‘무명으로 된’의 뜻을 가진 접두사이다.

13) ‘왕¹(王)-’은 ‘매우 심하다, 매우 크다’는 뜻으로 쓰이는 접두사이고 ‘왕²(王)-’은 ‘할아버지뻘 되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14) ‘그 항렬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의미의 유연성이 상실되었다.

15) ‘종¹(從)-’은 ‘사촌이나 오촌의 거래관계’를 나타내고, ‘종²(從)-’은 ‘직품을 구별하는 한 가지 이름’을 나타내는 접두사이다.

16) ‘중(重)¹-’은 ‘겹침’의 뜻으로 쓰이고, ‘중(重)²-’은 ‘심한’, ‘화력이 강한, 크기가 강한’, ‘갑비싼, 더 많은’의 의미로 쓰인다.

본고에서는 이 모든 문제점을 안고 있는 ‘친’을 대표적인 예로 하여 ‘친’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 몇 가지를 접두사의 의미로 인정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의 하위분류 방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신조어에 의해 기존에서 다루지 못한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이후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접두사들에 대해서 하나의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접두사 ‘친(親)-’에 대한 새로운 분석

한자어 접두사 ‘친(親)-’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 앞서 ‘친(親)-’이 접두사적인 쓰임을 보이는 의미를 『표준국어대사전』을 통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친(親)-’[접사]

[1]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몇몇 명사 앞에 붙어) ‘혈연관계로 맺어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친부모/친아들/친형제.

[2]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부계 혈족 관계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친삼촌/친손녀/친할머니.

[3] (고유 명사를 포함하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그것에 찬성하는’ 또는 ‘그것을 돕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친미/친정부/친혁명/친사회적/친여/친공.

『표준』 신어집에서는 ‘친자연’, ‘친환경’과 같은 단어들도 등재되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종이사전에는 없었지만 인터넷사전에는 등재되어 있다. 이때의 ‘친(親)-’도 접두사적인 쓰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그리고 이광호(1994)¹⁷⁾에서는 ‘친히, 친필’의 ‘친(親)-’도

17) 이광호(1994), 「한자어 접두사의 문법·의미적 기능」, <문학과 언어>제15집, 문학과언어학회, pp.14.

접두사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검토 대상으로 논의해보기로 하겠다. 따라서 사전에서 제시한 위의 세 가지 의미 외에 아래 두 가지 의미도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4] (명사 앞에 붙어서) ‘그것에 해를 끼치지 않거나 돕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¹⁸⁾

『친환경/친생태/친자연적/친해양.

[5] ‘몸소’, ‘친히’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 『친히/친솔

위의 다섯 가지 의미를 지니는 ‘친(親)-’이 기존 연구와 사전에서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자어 접두사	성환갑 (1972)	이광호 (1994)	노명희 (1998)	김인균 (2002)	안소진 (2004)	방향옥 (2011)	『표준』	『고려』	『연세』
친1	O	O	O	O	O	O	O	O	O
친2	O	O	O	O	O	O	O	O	O
친3	X	X	X	O	X	X	O	O	O
친4	X	X	X	X	X	X	X	X	X
친5	X	O	X	X	X	X	X	X	X

위의 도표를 보면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친1-’과 ‘친2-’는 모든 논문과 사전에서 다 한자어 접두사로 처리하고 있지만, 고유 명사를 포함하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쓰이는 ‘친3-’은 사전에서는 한자어 접두사로 인정하나 논문들에서는 한자어 접두사로 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심지어 일부 논의에서는 어근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친4-’는 거의 모든 사전이나 논문에서 접두사로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친5-’는 이광호(1994)에서만 접두사로 처리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 양상이 다른 것은 논의거리를 제공하는데, 본고에서는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친(親)-’에 대해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친1-’과 ‘친2-’는 대부분 논문에서는

18) 네 번째 의미에 대해서는 사전에서 접두사로 보지 않아 그 의미를 제시하지 않았기에 필자가 해석하여 덧붙인 것임.

하나로 묶어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의미적으로 어느 정도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전에서 분류한 방식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친1-’은 넓은 의미에서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어 혈연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데 그 의미가 다시 부계 혈족의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화된다. 즉 ‘친2-’는 ‘친1-’의 [+혈연관계]의 의미가 [+부계 혈족]의 의미로 축소된 것으로 이 둘은 ‘친(親)-’의 다의의미 중 가장 가까운 의미라 할 수 있다. 다음 사전에서는 한자어 접두사로 처리하나 많은 논문에서는 한자어 접두사로 보지 않는 ‘친(親)-’의 다른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준』에서 접두사로 사용되는 ‘친3-’의 뜻과 용례 ‘친일(親日)’에 대해서 의미를 어떻게 제시하였는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5) ‘친3-’: (고유 명사를 포함하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그것에 찬성하는’ 또는 ‘그것을 돕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친일(親日)’

[1] 일본과 친하게 지냄.

[2] 일제 강점기에, 일제와 야합하여 그들의 침략·약탈 정책을 지지·옹호하여 추종함.

사전에서 ‘친일’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데 하나는 ‘친(親)’의 기본 뜻으로 사용되어 일본과 친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의 정책을 찬성하거나 지지한다는 뜻을 나타낸다.¹⁹⁾ 전자에서의 ‘친(親)’은 단어에서의 어근이고 후자에서의 ‘친(親)’은 접두사로 볼 수 있다. ‘친일’의 두 의미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두 가지 의미를 성분 분석해보면 서로 다른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근으로 쓰일 때의 친하다는 보통 ‘정’을 쌓아 가까이 지내는 것이지만 접두사로 쓰

19) ‘친일’의 첫 번째 의미 해석이 잘못된 듯 보인다는 심사선생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필자 또한 이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전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일단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면서 수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친일’의 두 번째 의미가 의미 특수화를 겪었다고 제시해준 점에 대해서도 수용하는바 이를 참고하여 뜻풀이를 새로 만들었다.

일 때의 ‘친(親)-’은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정부’나 ‘친사회’는 첫 번째 의미로 해석되는 일이 거의 없는 데 이는 ‘사회와 친하게 지내다’가 의미상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의미의 유연성이 어느 정도 멀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첫 번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친일’, ‘친미’ 등의 의미가 사전에서는 위의 두 가지 의미로 다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의미는 사전의 두 번째 의미와도 다른데, 각주 19에서 언급한 것 같이 ‘친일’의 두 번째 용법은 의미 특수화를 겪은 것으로 현재에 사용하는 ‘친일’은 일제 강점기 때 사용한 ‘친일’과 의미가 조금 다르다. 즉 일제 강점기라는 어떤 특수한 시기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 침략과 약탈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기에 그 의미를 사전의 ‘친3’의 의미와 결합하여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옹호하고 지지하는’으로 수정해야 할 듯하다. ‘친미’, ‘친러시아’ 등도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그 생산성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표준』에서는 ‘친(親)-’이 이러한 의미로 파생된 단어를 표제어로 제시한 것이 ‘친일’, ‘친북성(親北性)²⁰⁾’으로 두 개밖에 안 되지만 그 후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신어』자료집이나 『표준』보다 늦게 출간된 『고려』에서는 좀 더 많은 파생어를 표제어로 실었다. 또한 뉴스와 같은 공식적인 문체나 기존 논문에서 든 예들을 보면 ‘친유럽’, ‘친러시아’, ‘친이란’과 같이 국가명을 나타내는 외래어 명사들과는 거의 모두 결합이 가능하며 ‘친박근혜’처럼 사람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와도 결합하고 있다. 또 아직 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친빨갱이²¹⁾’, ‘친일베²²⁾’와 같은 단어들도 뉴스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20) 이외에도 ‘친청파(親淸派)’가 더 있지만 의미는 ‘중국 청나라와 친한 무리’라는 뜻으로 ‘친하다’의 어근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역사시기 청나라와의 밀접한 교류로 인해 어떤 이익보다 정으로 가까이 지낸 집단들을 말하는데 현재 사용되는 ‘친일’이나 ‘친미’는 개인에 의해서도 사용되며 또는 그 나라와 직접적인 교류가 없음에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첫 번째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

21) ‘빨갱이’는 공산주의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표준』에 등재되어 있다. 아래는 동아일보의 한 구절을 인용한 예이다.

“美國(미국)은 現在(현재) 反共(반공)을 國是(국시)로 삼고 있으니까 이러한 者(자)들은 빨갱이 아니면 親(친)빨갱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동아일보:1955.1.18)

22) ‘일베’는 ‘일간베스트’의 줄어든 말로 ‘일간’은 한자어, ‘베스트’는 외래어지만 ‘일베’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언어로 고유어의 범위에 포함하여 볼 수 있다. 아래는

그것을 찬성하거나 지지한다는 의미를 더하는 ‘친(親)-’은 비자립성, 수식 범위의 제한성, 의미의 유연성, 고유어·외래어와도 결합 가능하기 때문에 한자어 접두사의 자격을 줄 수 있으나 앞의 ‘친1-’, ‘친2-’와는 의미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친²(親)-’로 제시하고자 한다²³⁾.

(6) ‘친²(親)-’:

[1] (고유 명사를 포함하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그것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친미/친정부/친혁명/친유럽.

위의 세 가지 유형의 ‘친(親)-’이 사전에서나 기존 논문에서 언급되었다면 ‘친환경’, ‘친생태적’에서의 ‘친(親)-’은 한자어 접두사의 목록에서 논의된 적이 거의 없는 한자어 접두사이다. ‘환경’이나 ‘생태’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친(親)-’은 ‘해를 끼치지 않거나 돕는’이라는 의미를 첨가해주는데 아직 사전에 등재하지 않은 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표준』에서도 ‘친환경’에 대해서는 인터넷사전에서는 등재되었지만 종이사전에서는 등재되지 않았다. 이는 이런 용법이 사용되기 시작한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도 2001년 이후 ‘친환경’이나 ‘친생태’²⁴⁾가 활발히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지금까지는 이러한 용법으로 쓰이는 예가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뉴스기사와 자연과학, 공학의 학술논문의 제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까지는 사전에서 표제어로 등재하거나 격식적인 문어체에서 ‘친(親)-’과 결합되어 사용되는 어기가 거의 모두 한자어였지만 인터넷에서는 ‘친바다’²⁵⁾와 같이 고유어와도 결합

뉴스에서 사용된 예를 인용해 온 구절이다.

“친일배 연예인 사냥의 대표적 사례로는 ‘빠빠빠’ 열풍을 몰고 온 걸그룹 ‘크레용팝’이 꼽힌다.” (프라임경제: 2013.08.26)

23) 이는 ‘왕¹(王)-’, ‘왕²(王)-’과 비슷한 양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4) ‘환경’이나 ‘생태’와 결합하여 쓰일 때 ‘-적’도 같이 붙여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서 ‘환경적’을 명사와 관형사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래 제시할 풀이에서 ‘명사 앞에 붙어서’로 제시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25) 그 용례 중 하나가 “마창대교 ‘친환경 친바다’ 관광명소로 만들자.”이다.

하여 쓰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아직 격식적인 문체에서 사용된 경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유어와 결합한다고 판단하여 한자어 접두사로 판별하기는 이르다. 따라서 ‘해를 끼치지 않거나 돕는’의 의미로 사용되는 한자어 ‘친(親)-’에 대해서는 한자어 준접두사로 판별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합할 수 있는 어기의 범위가 그리 넓은 편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 생산성을 가지고 쓰이는 접두사이만큼 앞으로 더 많은 고유어나 외래어들과 결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용법이 사전에도 표제어로 등재하게 된다면 충분히 한자어 접두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본다. 사전에서는 한자어 준접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에 한자어 접두사의 범주에서 제시하지만²⁶⁾ 본고에서는 앞의 ‘친1-’, ‘친2-’와는 의미상과 사용상이 다르고 ‘친3-’과는 의미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친²(親)-’의 준접두사로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7) ‘친²(親)-’

[2] (명사 앞에 붙어서) ‘그것에 해를 끼치지 않거나 돕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

▶친환경/친생태/친자연적/친해양.²⁷⁾

마지막으로 이광호(1994)²⁸⁾에서 한자어 접두사로 판별하는 ‘친필(親筆)’이나 ‘친솔(親率)’의 ‘친(親)-’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친필’에서의 ‘친

26) 『표준』의 접사 선정 기준은 ‘분석 가능성’, ‘비자립성’, ‘생산성’, ‘의미의 독자성’으로 ‘친4-’는 이 기준에 다 부합되어 접두사로 설정할 수 있다.

27) 익명의 선생님께서 ‘친정부’와 ‘친환경’을 발음할 때의 휴지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음운론적 기준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해주셨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음운론적 기준이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하기에 휴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를 표하지 못한다. 오히려 휴지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관형사와 접두사의 구분이 더 모호해질 수도 있다.

28) 이광호(1994:40)에서는 ‘친(親)-’의 접두사적인 쓰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로 제시하였다.

- 1) 직계의 한 부모에게서 난: 친형제, 친누이
- 2) 친근한의 뜻: 친정부과
- 3) 몸소, 친히: 친필, 친솔

(親)-’은 한자어 접두사의 목록에서 거의 논의된 적이 없는 형태소이다. 이때의 ‘친(親)-’은 ‘몸소’, ‘친히’의 뜻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한문에서 동사의 성격을 나타내는 어기와 결합하여 ‘몸소 어찌하다’, ‘친히 어찌하다’는 의미를 가진 명사를 파생시킨다. 또한 ‘친필(親筆)’, ‘친사(親事)²⁹⁾’처럼 명사의 성격을 지닌 어기들과도 결합하여 동사를 파생시키는데 한문지식이 없는 화자한테는 그 해석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유형은 오래전 임금의 몸소 하는 일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인데 『표준』에도 ‘친림(親臨)’이나 ‘친문(親問)’과 같은 단어들이 많이 등재되어 있다. 여기서 확장하여 임금이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을 표현하는 ‘친고(親告)’, ‘친서(親書)’와 같은 단어들이 생산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전에 등재된 이런 유형의 단어의 어기들은 한문에서는 자립적 성격을 지닌 단어이지만 한국어에서는 비자립적 성격을 가진 1음절 형태소로서 같은 비자립적인 ‘친(親)-’과 결합하여 나타내는 의미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후속어기의 자립성을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 기준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단지 특수성을 고려해 접두사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고자 한 것으로 대부분 어기가 비자립적일 경우 이는 접두사 자체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게 된다. 즉 이런 유형은 아직 한문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에 한국어체계에서 논의하지 못하며 따라서 접두사의 자격도 줄 수가 없다. 그 증거로는 또 지금까지 고유어와 결합되어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왕조시대가 아닌 현대에서는 그 사용도 줄어들어서 파생이 활발하지 못하므로 생산성도 줄어들고 앞으로 고유어와 결합될 가능성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준접두사의 기준에도 부합되지는 않는다. 즉 ‘몸소’, ‘친히’의 뜻을 표현하는 ‘친(親)-’은 한자어 접두사가 아니라 어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친(親)-’에 대해서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 ‘친¹⁾(親)-’: [한자어 접두사]

[1]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몇몇 명사 앞에 붙어) ‘혈연관계로 맺어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9) 친사(親事): 임금이 몸소 일을 다스림.

¶ 친부모/친아들/친형제.

[2]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부계 혈족 관계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친삼촌/친손녀/친할머니.

‘친²(親)-’:

[1] [한자어 접두사] (고유 명사를 포함하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그것을 옹호하고 지지하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친미/친정부/친혁명/친사회적/친여/친공.

[2] [한자어 준접두사] (명사 앞에 붙어서) ‘그것에 해를 끼치지 않거나 그것을 돕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친환경/친생태/친자연적/친해양.

위의 ‘친(親)-’의 4가지 의미는 넓은 범위에서는 한자어 접두사로 제시해도 무방하지만 한국어에서의 체계를 고려하여 고유어와의 결합가능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자어 접두사와 한자어 준접두사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자어 접두사일 때에는 주로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의미와 어떤 것을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의미로 쓰이고 한자어 준접두사일 때에는 그것에 해를 끼치지 않거나 돕는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의미적인 면을 보면 ‘친1-’과 ‘친2-’는 서로 연관성을 지니고 ‘친3-’과 ‘친4-’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사전에서 제시할 때에는 접두사와 준접두사의 기준보다는 의미적인 것을 기준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친1-’과 ‘친2-’는 결합하는 어기의 의미범주의 제한성으로 인해 현재 생산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친3-’은 국가명이나 사람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와 결합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의미 중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접두사이다. ‘친4-’는 사용되기 시작한지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며 주로 한자어와 결합하지만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유어와도 결합하기 시작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유어와 결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예로 ‘친바다’와 같은 단어가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언중들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좁은 범위에서 나눈 한자어 준접두사의 의미로 쓰인 ‘친(親)-’도 한자어 접두사의 자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친(親)’은 대부분 논의에서는 친족계열 접두사로 보고 있고 사전에서는 ‘친일, 친미’와 같이 ‘그것을 지지하는’의 의미를 더해 세 가지 의미 양상을 보이는 접두사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친(親)’이 결합되고 있는 단어들을 훑어보면 이 세 가지 의미 외에도 또 다른 의미를 가진 접두사적인 쓰임을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에서 ‘친(親)’에 대한 분석과 실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관찰하여 보면서 ‘친(親)’이 한자어 접두사로 판별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논의에서 제시한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 기준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네 가지 기준인 ‘비자립성, 수식 범위의 제한성, 의미의 유연성 상실, 고유어와의 결합 가능성’으로 한자어 접두사를 설정하고 접두사의 기능을 가지고 또 생산적으로 사용되지만 아직 고유어와 결합하지 못하고 있는 접두사에 대해서는 준접두사로 처리하여 접두사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접두사와 준접두사의 범주에 따라 ‘친(親)’을 분석하였는데 친족계열의 쓰임을 보여주는 것과 ‘무엇을 지지하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한자어 접두사로, ‘무엇에 해를 끼치지 않는’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준접두사로 분류하였다. 친족계열과 ‘무엇을 지지하다’는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친¹(親)’과 ‘친²(親)’로 따로 분류하고 다시 ‘친¹(親)’에서는 ‘혈연관계로 맺어진’의 의미와 ‘부계 혈족 관계인’의 의미로 세분화하고 ‘친²(親)’에서는 ‘그것을 옹호하고 지지하는’의 의미와 ‘그것에 해를 끼치지 않는’의 의미로 분화하였다. 또한 ‘친²(親)’가 인터넷과 같은 매체에서는 고유어와도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아 준접두사에서 접두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자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 『고려대한국어대사전』, 고려대 출판부.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국립국어원(1995-2005), 『신어』, 국립국어원.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2. 논저

기주연(1991), 「근대국어의 한자어 파생어에 관한 고찰」, <語文論集> 제30호,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회연구회, pp.363~390.

_____(1991), 「近代國語의 接頭辭 設定의 限界와 基準에 관한 考察: 17,8世紀 國語資料를 中心으로」, <韓國學論集> 제19집, 漢陽大學校韓國學研究所, pp.5~32.

김규선(1971), 「국어 접두파생법의 연구: 문법서에서의 접두사 설정에 대한 검토」, <국어교육연구> 3, 경북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pp.151~172.

김규철(1980), 「漢字語 單語形成에 대하여」, <국어학> 제29집, 국어학회, pp.261~308.

김인균(2002), 「국어의 漢字語 接頭辭 연구: 國語辭典의 登載語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0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85~108.

김창섭(1992), 「파생 접사의 뜻풀이」, <새국어생활> 2-1, 국립국어연구원.

_____(2008), 『한국어 형태론 연구』, 태학사.

노명희(1998), 「현대국어 한자어의 단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2004), 「어기의 범주를 바꾸는 접두한자어」, <韓國言語文學> 제53집, 한국언어학회, pp.123~151.

_____(2005),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태학사.

박형우(2004), 「고유어 접두사 설정의 기준」, <청람어문교육> 제28집, 청람어문교육학회, pp.391~419.

방향옥(2011),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의 파생어 대조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범기혜(2011), 「한자 접두사의 설정과 사전적 처리」, <한국어 의미학> 제37집, 한국어어학회, pp.213~243.

서병국(1975), 「現代國語의 語構成 研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정미(1995), 「현대 한국어 접두 파생어」,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환갑(1972), 「接頭辭 研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철의(2001),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파생접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안소진(2004), 「한자어 접두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효경(1994), 『현대국어 접두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명희(2008), 『二音節 漢字語 뒤에 오는 一音節 漢字語에 대하여』, <어문연구> 제36권 제3호 통권 제139호, 어문연구학회, pp.63~85.
- 왕 방(2008), 『과생접두사의 의미 분류 연구,1: 친족관계, 지역적 관계, 수, 부정의미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제25집, 반교어문학회, pp.41~79.
- 유현경(1994), 『접두사의 사전적 처리』, <언어정보와 사전편찬>9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pp.83~103.
- 이광호(1994), 『한자어 접두사의 문법·의미적 기능』, <문학과 언어>제15집, 문학과 언어학회, pp.27~46.
- 이수정(2011), 『한자어 접두사에 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제36집, 서울대학교, pp.75~106.
- 이익섭, 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최규일(1989), 『韓國語 語彙形成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형강(2007), 『접두사 ‘생-, 날-’의 의미 분석』, <어문학>제96집, 한국어문학회, pp.161~190.
- 최형용(2006), 『한자 접사와 고유어 접사의 대응 양상에 대하여』, <한중인문학연구> 제19집, 한중인문학회, pp.339~361.
- 추애방(2012), 『한·중 한자어 접두사 특성에 대한 고찰』, <중국어학논총>제38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pp.91~120.
- 홍종선, 김양진(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접사 선정의 기준: ‘공시적 분석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통권>제54호, 한국어학회, pp.325~359.
- 황화상(2011), 『현대국어 형태론』, 지식과 교양.

Abstract

Study on the Korean Chinese prefix *Chin* - Focusing on the Need to Set a Semi-Prefix -

Xu, Mei-yu

A large amount of research has investigated whether to recognize a Korean Chinese prefix and the distinction standard for the prefix; however, little study has been conducted upon each prefix. The method to set the distinction standard would, of course, change the list of prefixes, but on studying previous research, we found a significant amount that only selected and categorized the representative meanings of the prefixes without investigating their entire meanings. Different dictionaries have different meanings for the same word, so when distinguishing a prefix, it is advisable to use and analyze various dictionaries collectively rather than just one. After making a list of the meanings, we examined whether the word was used as a determiner or adverb and which meaning was used as the root or as the prefix. Using this as the starting point, this paper has taken a close look at the prefix *Chin* (親)-, which has five different meanings. Although *Chin* in *Chinbumo* (parents) and *Chinhalmuni* (grandmother) was categorized as a prefix in most papers, there was a disagreement on whether to regard the two examples as having the same meaning. There were different opinions on whether to regard *Chin* in *Chinjungbu* (father) and *Chinpil* (one's own writing) as a prefix, and most of the papers concluded that *Chin* in *Chinhaeyang* was not one. Therefore, to evaluate this distinction further, this paper has analyzed previous methods of setting standards for prefixes and has come up with four standards for the prefix:

non-independence, limitation on the scope of modification, loss of flexibility in terms of meaning, and possibility of combining with a distinct word. Among the prefixes, semi-prefixes are set for words that cannot be combined with distinct and foreign words as we think that they are not completely absorbed into the distinct word system, and we put forward the possibility that these words might be converted into prefixes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set standards, we have analyzed *Chin* (親) and concluded that *Chin* in *Chinjok Keyul* (relative affiliation) and *Bukye Hyuljok Kwanke* (paternal blood relationship) are both acknowledged as prefixes, but have different, separately categorized meanings. *Chin* in “supporting something or someone” has been taken as a prefix and *Chin* in “not doing harm to something or someone” has been taken as a semi-prefix. Regarding the meaning of *Momso* (myself), we thought it appropriate that the usage was deemed a root rather than a prefix.

Key Words : Korean Chinese word, non-independence, limitation on the scope of modification, loss of flexibility in terms of meaning, possibility to combine with distinct word, prefix, semi-prefix, ‘Chin(親)’.

이 논문은 2015년 11월 2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5년 11월 23일부터 2015년 12월 2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5년 12월 21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서미옥 : meiyul03@gmail.com